

25년간 불거진 '보조 사상' 논쟁 재조명

6월 30일, 보조사상연구원 100회 특집 월례 학술대회

수행실천운동인 정혜결사로 한국불교의 기틀을 세운 보조국사 지눌 스님(1158~1210년).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해 널리 알린 보조사상연구원 정기월례학술대회가 100회를 맞는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법산 스님)은 6월 3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0회 특집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쟁점으로 본 보조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보조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불거진 논쟁들이 다뤄진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보조 지눌 스님이 한국불교에 전한 가르침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학술대회 제1주제에는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성철 스님은 왜 보조선을 비판했는가'가 진행된다. 제2주제에는 동방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의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공존할 수 없는가', 제3주제에는 박건주 전남대 교수의 '〈절요사기〉와 〈간화결의론〉에서의 간화선 법문과 그 문제점'이 발표된다.

특히 이병욱 교수는 먼저 발표된 '성철 스님은 왜 보조선을 비판했는가' 발표논문에서 성철 스님이 〈선문정조〉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지눌 스님의 사상을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고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 교수는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보조 지눌 스님이 〈간화결의론〉에서 활구 참구할 것을 말하면서

교학적 이해에 의한 깨달음을 지지하였다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보조 지눌 스님은 활구참구 외에도 교학에 의한 수행을 포용한 것으로 두 스님 간의 방편을 인정하느냐 않하느냐 태도의 차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방편을 인정하지 않는 순수한 선종을 주장한 성철 스님에 비해 보조 지눌 스님은 유연한 입장에서 방편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에 둔점논쟁 바람 일으켜

성철의 보조선 비판 검토

간화선과 위빠사나 공존 모색

보조 간화선 진위 다루며

이 교수는 여기에 더해 "성철 스님이 보조 지눌을 비판한 것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수행론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수행론은 돈오점수, 돈오돈수, 위빠사나 수행 등을 모두 포용하는 것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도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공존' 논문에서 보조 〈수심결〉에서 사미 수행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정년의 부분을 강조한 점과 원나라 중봉 스님이 사미수행을 간화선 화두수행의 기초로 삼은 점을 들어 "사미가 없으면 화두 참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

했다. 박건주 교수(전남대는 '〈절요사기〉와 〈간화결의론〉에서의 간화선 법문과 그 문제점' 논문에서 "진각해심 스님은 보조 스님이 임적 수개월 전 저술해 임적 후 간행한 〈절요사기〉에서 교묘히 간화선 법문을 위조해 끼워 넣었다"며 "간화선을 최상 선법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나 사실은 보조가 그런 법문을 펼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고려 무신정권 하의 도적으로 펼친 간화선 반창 운동은 당시 여러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은 1987년 2월 창립 25년간 22회의 국내의 학술대회와 100회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창립 당시 송광사 주지였던 현호 스님이 이사장을, 범정 스님이 원장을,故 이종의·심재룡 교수를 비롯해 법산 스님 권기중 김희성 한기두 박성배 로버트 버스웰 등 한국불교학 대표학자들이 발기인으로 동참했다. 연구원은 1990년대에는 둔점논쟁 주역으로 교계에 깨달음의 토론 열풍을 불러왔으며 이는 성철선사상연구원 개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교계 최초 학진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인경 스님(동방대학교), 박영재 교수(서강대), 임성택 교수(경북대) 등 국내 보조사상 전문가 등이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배출된 학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광사 국사전에 있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진영

금강대 개교 10년 한중일 교류

중국 런민(人民)대·일본 도요(東洋)대와 공동연구 진행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중국 런민(人民)대, 일본 도요(東洋)대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학술교류를 추진한다.

금강대는 6월 22일 서울 을지로입구 페럼타워에서 중국 런민(人民)대·일본 도요(東洋)대와 '불교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는 주제로 아래 향후 10년간 매년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학술대회로 6월 22~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주관 하에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도에서 기원한 불성·여래장상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수용되는 과정과 그 변용의 양상에 대해 다뤄졌다.

이어 22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SK 허브빌딩에서는 3개 대학 대표인 정병조

금강대 총장, 일본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도요(東洋)대 총장, 중국 양웨이 림(楊慧林) 런민(人民)대 부총장의 대담이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세 대표는 △불교의 동아시아에서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입장 △인문학으로서의 불교학의 위치 △현대 사회와 미래에서 불교, 불교학의 역할 △미래 대학의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했다.

정병조 총장은 "중국 인문사회과학을 주도하는 런민(人民)대와 125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도요(東洋)대와 공동 연구 진행은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래되어 3개국에서 번창했던 7~8세기 불교의 연대를 다시 되살리는 의미가 있다"며 "동아시아가 다시금 세계불교학 연구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정병조 총장(가운데)과 중 런민대, 일 도요대 총장이 협약을 맺고 함께 웃고있다.

'근현대불교사연구모임' 발족한다

7월 17일...무크지 발간, 한글공동세미나 등 사업 전개

일제시대 한국불교를 비롯해 근현대 100년의 한국불교를 집중 연구하는 학술모임이 발족한다.

근현대불교사연구모임 발기인들은 6월 19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7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근현대불교사연구모임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에는 이사장에 흥과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부이사장 법산 스님(보조사상연구원장), 상임이사에 포교원장 지원 스님, 이사에 진관, 지원, 송목, 법상, 도관, 묘광 스님이 참여한다. 연구소장에 진관 스님(문학박사)을 축으로 책임연구진에

차차석 교수(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진철문 박사(철학)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발기인들은 "근대 불교 100년사의 역사 연구를 통해 한일 불교 역사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조선 개화기 이전의 조선불교 △조선개화기 선불교의 태동과 재가불자들의 역할 △고종 시대 이후 조선불교의 활동 △도산출입금지 해제와 역사성 △일본불교계의 조선 포교당 설치 △조선총독부 시대 조선불교 등을 연구과제로 꼽았다.

진관 스님은 "근현대불교와 관련된 무크지를 발간하며, 한일 불교 공동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일제 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 조명

불교사회학 6월 29일, 3개 주제로 학술토론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한국 호국불교 전통의 재조명'과 '조선시대 의승군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연장선상이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불교 전통으로 전해온 호국불교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양상과 그 역할을 조명한다.

먼저 이동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1920~30년대 진보적 불교

계 인사들의 민족운동'을 통해 진보 불교 인사들이 북경지역 한인민족운동을 주도했음을 밝힌다.

이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교의 민족운동'을 통해 3·1운동 이후의 불교계 민족운동 흐름을 고찰한다.

또 한금순 제주대학교 강사가 '1910년대 불교계의 동향과 제주 범정사 항일운동'을 통해 3·1운동 이전의 불교계 항일운동을 다룬다. 범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일운동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종립대학 간 학생 및 학술교류 한다

동국대·금강대 등 5개 대학 참여의사 밝혀

불교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과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불교종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가 6월 18일 종립대학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정병조 금강대 총장, 김명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배도순 위덕대 총장 등 불교종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원대학 총장들은 △학생(대학원생 및 학부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교과과정 및 방법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교직원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의 상호 교환 △시설물의 상호 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학교육과 연구의 전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원대학 본부장들은 '학점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립대학 학생들은 최대 1년간 교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불교 종단 간 협력을 비롯해 종립 대학 간 교류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12일까지
-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3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학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